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는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처럼 선이나 점선의 형태가 아닌 6개의 돌출된 점으로 24개의 한글 자모음을 대신한다. 6개의 점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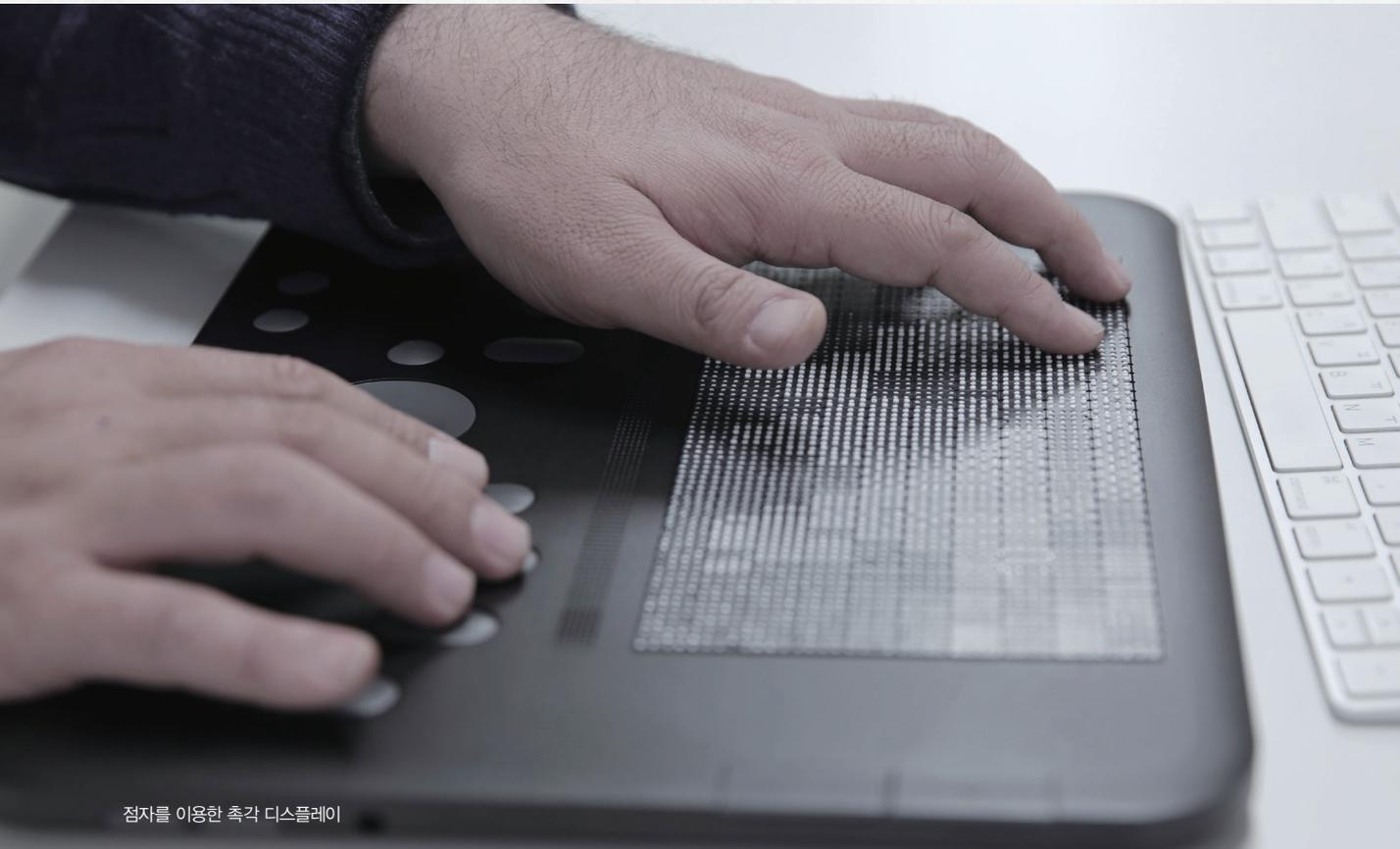
글 편집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6개의 점

● ● ● ● ● ●
● ● ● ● ● ●
● ● ● ● ● ●
● ● ● ● ● ●

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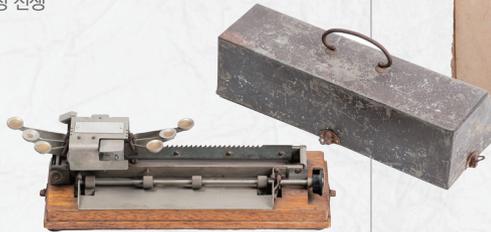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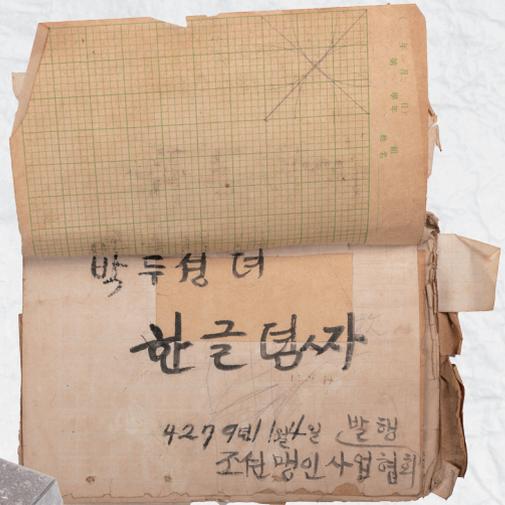
훈맹정음



점자를 이용한 촉각 디스플레이



송암 박두성 선생

박두성선생이 직접 사용한 점자타자기 일체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한글점자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설명서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

6개의 점, 시각장애인의 글이 되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이와 만든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다. ‘훈민정음’으로 불리며 기념일을 정해 그 우수성을 기리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한글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점자에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점자 역시 기념일인 점자의 날(11월 4일)을 가지고 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이 되는 이 점자는 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며 각 점에는 1부터 6까지 번호가 붙어있다. 6개의 점이 어떤 형태로 돌출되느냐에 따라 64개의 점형(패턴)이 생기며 이 각각의 점형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점자다. 점자는 이 돌출된 점형을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읽어야 하는 촉각 문자이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훈련, 노력이 필요하다.

점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토대가 마련된 건 19세기 프랑스였다. 그 이전까지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이용 문자판인 타벨라(Tabella, 로마 시대 수사학자 키타리아누스 개발)나 목판에 알파벳을 새겨 넣는 방식 또는 철사로 만든 글자 모양, 다른 두께의 실에 간격을 두어 매듭짓는 방법 등을 통해 문자를 대신했다. 이후 18세기 프랑스의 발렌타인 아우이(Valentin Hauy)가 최초의 양각 신문자를 창안하였고 19세기에 미국의 하우(Samuel Gridley Howe)가 로마체의 각도를 수정한 보스톤 신문자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점자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육군 장교였던 찰스 바르비에(Charles Barbier)가 전쟁터에서 야간에 군사용 작전 명령문을 읽을 수 있도록 세로 6점, 가로 2점으로 된 군사용 야간 문자를 고안한 것이다. 이 야간 문자를 파리맹학교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이습우화 점자원판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



제판기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

재학생이던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1824년 촉각으로 읽기 쉽도록 세로 3점, 가로 2점인 6점 점자로 창안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점자를 영어로 브레일(Braille)이라고 부른다. 이후 점자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용되면서 여러 혼란이 생기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종류의 점자와 선문자가 개발되면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점 전쟁(The War of Dote)'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점자를 통일했다. 그리고 점자의 약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약자 전쟁(The War of Contractions)'도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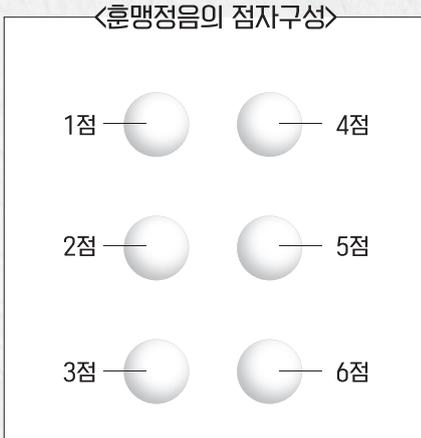
훈맹정음, 독창적으로 창안되다

우리나라 점자인 훈맹정음은 루이 브라유보다 100여 년 뒤인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창안되었다. 그는 제생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면서 1920년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해 일본어 점자와 천자문 점역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연구에 몰두해 한글점자를 창안,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하게 된다.

훈맹정음이 독창적인 것처럼 훈맹정음 역시 매우 독창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점자의 경우 브라유의 'a, b, c, d, i' 다섯 자를 모음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훈맹정음은 ①초성별로 점을 달리하는 기본점의 원리 ②대칭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점자는 옆으로 풀어쓰는 특성이 있어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훈맹정음은 초성과 종성을 좌우 또는 상하로 대칭 이동시켜 모양을 그대로 살렸다. 때문에 독창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서 비교적 배우기 쉽다고 한다.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로 조합된 형태라면 점자는 이것을 각각 풀어쓴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글자를 'ㄷ', 'ㅇ', 'ㅇ'으로 쓰는 것이다. 점자에서 초성은 위쪽이나 왼쪽에, 중성은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종성은 상하좌우 골고루 퍼져 위치한다. 풀어쓰기 방식으로 나열하지만 점이 한 글자씩 뭉치게 하여 손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글자를 고안한다고 한다. 점자는 대개 4.2×6.6mm의 공간 안에 6개 양각의 점으로 글자를 형성하는데,

점자판(점자기)의 점 칸에 송곳처럼 생긴 점필을 이용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며, 읽을 때는 뒤집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간다.



훈맹정음이 반포된 지 10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2020년 출판된 책 중 점자책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거의 출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지하철 안내도 등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점자를 보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급격하게 늘어난 키오스크나 무인 셀프 계산대에는 점자 안내에 적은 정보만 담겨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기가 개발되어 보급된지는 제법 되었으나 높은 가격과 사용이 불편한 점 때문에 보급률은 떨어진다. 최근 들어 뜻있는 이들이 점자 표시 장치 개발 분야에 꾸준히 도전해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격은 낮추고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점자로 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점맹률)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86%라고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 10명 중 2명 정도만 점자를 읽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 워치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박두성 선생은 훈맹정음을 창안한 뒤에도 조선어 독본, 천자문, 명심보감 등 수많은 책을 점자로 만들어 자비를 들여 보급하고 교육했다.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판과 점자 해설서, 조선어 독본을 보내어 문맹 퇴치에도 힘썼다. 그의 자택에는 점자 인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11월 4일인 점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글을 읽고 쓰는 작은 권리와 배움의 기쁨을 동등하게 누리는 보통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

